

전남 지역농협 합병 바람 거세다

전남 지역 단위농협의 합병 바람이 여전히 거세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립경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당분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신안농협과 안좌농협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병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양쪽 모두에서 과반수 이상이 전성해 합병이 가결됐다. 신안농협에서는 전체 조합원 2350명 가운데 63.79%인 149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의 58.24%인 873명이 찬성했고, 안좌농협에서는 1148명이 투표에 참여해 690명(85.40%)이 찬성했다.

신안·안좌농협이 이날 합병을 의결함에 따라 총자산 1711억원의 대형농협이 탄생하게 됐으며 두 농협은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합병과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러한 농협 합병 바람은 지난해부터 거세게 불었다. 수익 악화 등 위기의식에 지역

수익악화 등 타개 돌파구 신안-안좌농협 합병 가결 순천·나주 등서도 활발

단위 농협이 돌파구 모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강진농협과 성전농협이 합병한 강진농협을 시작으로 남신안농협(하·장산농협), 나주 다시농협(다시·문평농협), 영암 남주골농협(도포·덕진농협) 등이 새롭게 한 식구가 됐다.

올해 역시 합병 추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 별량농협과 순천농협이 합병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나주 공산농협과 마한농협도 합병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농협의 합병 추진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기반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합병을 통한 규모화로 조합원의 실제

증대와 경쟁력 및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병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합병과 관련 일부 농협에서는 불협화음이 나오는 등 합병 추진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암과 신안 등 일부지역에서 합병 추진 대상 농협간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병반대가 많았고, 합병 추진 농협간 자산규모와 영업 구조를 놓고 주도권 다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경영악화로 합병 권고 많아지는 상황에서 수익구조 창출이 어렵다고 무조건 합병할 게 아니라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등 효율성과 지역 사회의 정서를 최대한 수용한 합리적인 합병조합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해외시장개척 성공 세미나

홍콩무역발전국 내일 광주서

홍콩무역발전국(HKTDC)이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28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해외시장개척 성공전략 세미나(부제: 홍콩·중국시장 진출)’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홍콩의 최신 경제 정보와 홍콩을 경유한 중국 진출 이점에 대해 소개되며, 맹칭신 홍콩무역발전국 한국대표부 수석 컨설턴트는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직접 강연에 나선다.

행사 문의(02-551-7101).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잘해 봅시다” 26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노사 ‘2014년 임금단체교섭 조인식’에서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오른쪽)과 허용대 대표지회장이 단체교섭 약정을 교환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8개월 여만에 2014년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금호타이어 제공>

전남도, 올 중소기업 융자금 2100억 지원

전남도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 융자금을 지난해보다 550억원 늘어난 21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자체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규모를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충하고, 은행 자금도 115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창업과 경쟁력 강화자금 12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10억원, 경영 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종전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이율은 3.41%

에서 3.0%(벤처기업은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은행 자금을 활용해 경영 안정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2.0~2.5%의 이자 지원을 하던 것을 올해는 2.5~3.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강소기업’은 2년간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융자 한도를 20억원까지 확대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종전 5년에서 최장 8년으로 늘리는 등 기업 성장을 적극 돕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35.68 (-0.41)	금리 (국고채 3년) 2.02%
▲ 코스닥 590.34 (+1.03)	▼ 환율 (USD) 1080.80원 (-3.30)

새해 새 설계

박영춘 수자원공사 광주·전남본부장

“영산강·섬진강 통합물관리 효율 극대화”

스마트워터시티 확대

지방상수도 운영 활성화

주암댐 도수터널 조기추진

“영산강·섬진강 유역 통합물관리와 홍수재해통합관리사업, 소비자가 직접 보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 표준 모델인 스마트워터시티(SWC) 확대를 통해 건강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를 이끄는 박영춘(56) 본부장은 26일 광주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물 복지 실현과 지역 사회 발전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지역 간 물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수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서 한발 더 나가 인체에 건강한 물 공급으로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일수에서 수도꼭지까지’의 물 공급 전 과정에서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워터그리드를 구축하고, 물 처리 공정 또한 물에 이로운 미네랄 등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지방상수도를 통한 건강한 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08년 나주를 시작으로 함평, 장흥, 완도, 진도 등 5개 시군에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유수를 제고, 시설현대화를 목표로 고객 서비스 강화와 품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을 확대도입해 건강한 물

공급 표준모델을 적용한 지방상수도 신규 수탁사업 발굴하면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효율화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량과 수질 취약지역의 효율적 물 관리를 통한 지역 물 복지 실현에도 힘

쓸 방침이다.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지자체와 협의해 취수원 부족 지역과 수량불안정 지방상수도, 수질취약 마을상수도 등에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비상급수자재 상호지원, 상수도 기술교류, 수도물 품질홍보 등 협력체제도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박 본부장은 “최근 산업 발달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내 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댐을 활용한 효율적 물 배분,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등 통합 물 관리에 힘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상홍수 대비 댐 치수능력 및 안정성 증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광양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및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지역 연구대학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등 물 산업 동반성장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댐주변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 의료봉사 활동,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실질적인 사랑과 나눔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박 본부장은 조순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창원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1986년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한 후 경남부산운영처장, 광주전남운영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2월 광주·전남본부장에 취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셀랩, 비크론 하이드로겔 마스크 3종 출시

세포과학과 생명과학 연구개발(R&D) 노하우로 주목 받고 있는 ㈜셀랩(대표이사 박순옥)의 대표 브랜드 비크론이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피부에 그대로 전달하는 비크론 하이드로겔 마스크 3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에센스 한 병을 겔 속에 그대로 담아 빠르고 즉각적으로 보습과 영양을 전달해 오랜 시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는 고효능 하이드로겔 마스크이다.

이번에 출시된 비크론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프리미엄 콜라겐’, ‘에스카르고’, ‘제주마유’ 등 3종으로 피부 타입이나 상태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프리미엄 콜라겐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정정 바다의 생명을 담은 마린콜라

겐 1000ppm을 함유해 생기 어린 탄력 피부로 바꾸어주며 ‘에스카르고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손상된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는 달팽이 점액이 1000ppm 함유되어 있어 영양 부족으로 거칠고 건조해진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사람 피부와 거의 동일한 성분의 보습제인 천연 오일 마유가 함유된 ‘제주마유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마치 고보습 크림을 겔에 담은 듯한 제품으로 일반 겔

마스크보다 사용감이 부드럽고 지속력이 오래가는 크림타입 겔 마스크이다. 이들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취득하고, (주)대한피부과학연구소의 피부 자극 테스트를 거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콜라겐 마스크, 에스카르고 마스크, 제주마유 마스크

1636 결과 믿음소망 알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황금시연'이 연속모임으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주)골미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www.golochina.co.kr

입학상담문의 GOLochina 중국 전문 번역당

233-9582 (총) 구오탈리